



설을 앞둔 11일 제주우편집중국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직원들이 총출동해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설 앞둔 제주우편집중국 풍경… 20일까지 특별소통기간

택배 물량 평소보다 40% ↑ 분류 작업 인력 늘려도 ‘헉헉’

“명절 전후로는 사무직원들도 모두 투입되죠. 그렇지 않으면 물량을 분류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11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연동의 제주우편집중국. 야외주차장에는 택배를 내리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선 채 있었다. 모두 이날 오전 제주항에 도착한 물건들이 실린 화물차들이었다.

물류창고 내부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화물차에서 택배 상자를 내리고, 송장에 찍힌 도착지에 따라 분류했다. 제주 감귤부터 월동무, 사인머스켓 등 특산품과 명절 선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분류작업자 중에는 옛날 얼굴의 청년들도 여럿 있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 청년들이다. 이 병관(21)씨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모으려 작년 7월부터 근무하

고 있다”며 “설 명절이라 물량이 많지만 다른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버틸만 하다”고 했다.

직원들의 손을 거쳐 분류된 택배들은 다시 하나씩 깔판 위에 차곡 차곡 쌓여갔다.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 빈틈 없이 빠곡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해 담당 직원의 노련함이 필요했다. 물류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동 랩핑기가 상자들을 공풍 싸매는 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각 우체국으로 배송된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제주우편집중국엔 설 새 없이 분주했다. 특히 연휴 기간과 만감류 출하기가 겹쳐 안 그래도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발생한 선박화재로 결항이 생겨 육지로 실어 나르지 못한 택배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상 시 제주우편집중국이 소화하는 물량은 약 2.5t이다. 명절 전

후로는 택배량이 크게 늘어 약 3.5t 가량의 택배가 접수된다.

이에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2일부터 제주우편집중국에 추가 인원 20명을 투입했다. 평소 직원 수는 30명이다. 물량이 쏟아질 때는 사무직원들까지 모두 나서 총 80명의 직원들이 투입되기도 한다.

김병철 제주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장은 “제주의 경우 물류를 모두 선박으로 배송해야 하는데 최근 약기상과 사고 등으로 물량이 많이 밀려 있다”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물류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설 연휴 제주공항 52만명 몰린다

작년보다 15% 증가… 관광객은 24만여명 입도 전망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측이 터미널 혼잡 완화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 기간 항공기 2867편이 운항하고 52만 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478편, 8만6970명 수준으로, 지난해 설 연휴(1월 24~26일 10일간, 일평균 435편·7만5458명)에 비해 운항은 10%, 이용객은 15%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붐비는 날은 18일(9만567

명)로 예측됐으며, 16일(9만434명)에도 9만명 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인 17일에도 8만897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연휴 후반 혼잡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제주공항은 대책기간 ▷신분확인대 추가 운영 ▷체크인카운터 및 출국심사대 조기 개장 및 확대 운영 ▷주차장 추가 확보(임시 700면) 및 안내 인력 확충 ▷체크인 카운터 탄력배정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 24만명 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3~18일 6일간 입도 관광객

은 9일 기준 잠정 24만5000명(항공 21만5500명, 선박 2만9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5~30일) 23만1161명보다 6.0% 증가한 규모다.

항공편 입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국내선(18만6800명)이 5.2%, 국제선(2만8700명)은 57.3% 각각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박편 관광객은 국내선(2만3700명)이 3.2% 소폭 늘지만 국제선(크루즈) 관광객(5800명)이 53.5%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전체적으로 16.7% 감소할 전망이다. 일자별로는 15일(4만6000명)에 입도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지기자

설 연휴 병원·약국 560곳 운영

14~18일 교통안전특별관리
자치경찰, 음주단속도 실시

도,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도민과 관광객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도내 병·의원, 약국 총 560곳이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제주도청과 6개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휴 기간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보건기관 50곳, 병·의원 381곳, 약국 129곳도 문을 열 계획이다.

도내 6개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한다. 추자·우도 등 4개 보건지소와 읍·면 지역에 소재한 40개소 보건진료소

는 지역별 순번제로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 경증환자는 지역별 달빛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읍·면지역 등에서는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120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톡톡’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톡톡’ 앱은 증상을 입력하면 가까운 이용 가능 의료기관을 추천하고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도 안내한다.

제주도는 명절 기간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에게는 응급실 대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명절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는 공·항만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평화로, 변영로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추모객 이동이 집중되는 명절 당일에는 양지공원 일대에 교통경찰을 선제 배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제례 후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식당가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백금탁기자

도의회, 제주형 BRT 질타… 4면 / ‘남방큰돌고래’ 제주 밖 첫 발견… 5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현승중
(함덕농협조합장)

부의장 김병수
(애월농협조합장)

감사 고권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농협 제주시지부
지부장 양주필**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제주시농협조합장
고 봉 주**

**조천농협조합장
김 진 문**

**한림농협조합장
차 성 준**

**한경농협조합장
김 군 진**

**제주고산농협조합장
고 영 찬**

**김녕농협조합장
오 충 규**

**구좌농협조합장
윤 민**

**하귀농협조합장
강 병 진**

**제주축협조합장
천 창 수**